

## 제주민요로 보는 제주경제사 연구 시론\*

진관훈\*\*

### 국문요약

제주민요에는 노동요(勞動謠)가 많다. 제주지역 노동요에는 ‘검질 매는 소리’, ‘밭 밟는 소리’, ‘도리깨질 소리’, ‘방아 찼는 소리’, ‘멸치 후리는 소리’, ‘해녀 뱃소리’, ‘고랫소리’, ‘가래질소리’, ‘꼴 베는 소리’, ‘툽질소리’, ‘방앗돌 굴리는 소리’, 말총으로 양태, 망건, 탕건 등을 결으며 부르던 관망요(冠網謠)등이 있다.

노동요에는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한 생산 활동에 관한 구체적 사실들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어부가(선유가)에는 당시 마을마다 지역특성에 맞게 행해졌던 가내수공업이나 부업활동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제주민요에 나타난 당시 생산 활동, 경제생활, 경제적 행위 등과 제주경제사 사실(史實)과의 연관성을 모색하는 ‘제주민요와 제주경제사의 학제간 연구’는 학문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제주지역 노동요를 9개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표적인 노동요를 골라 총 20개의 제주지역 노동요가 가지는 제주경제사적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노동요(4), 어업노동요(4), 목축노동요(2), 임업노동요(2), 수공업노동요(1), 가내공업노동요(3), 토목노동요(2), 운반노동요(1), 제분노동요(1) 등이다.

**주제어 : 제주민요, 제주경제사, 노동요, 선유가, 학제간 연구**

---

\* 다 아는 사람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온정주의적 심사는 학술지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면 자칫 많지 않은 연구자들의 의욕을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소신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일부 견해가 다르고 역량이 모자라 반영 못한 지적사항은 향후 보완해 가려 한다.

\*\*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

## I. 서론

‘제주도는 민요의 나라이다.’ 일반적으로 민요는 민중들의 사상, 생활, 감정을 담고 있으며 노동이나 생산 활동과 연관된 생산적 노래이다. 제주민요에는 농사짓기 소리(農謠), 고기잡이 소리(漁謠), 일할 때 부르는 소리(勞動謠), 의식에서 부르는 소리(儀式謠), 부녀요(婦女謠), 동요(童謠), 잡요(雜謠) 등이 있다. 특히 제주민요에는 노동요(勞動謠)와 부녀요(婦女謠)가 압도적이다(김영돈, 2002: 3).

이 노동요에는 농사짓기 소리로 ‘검질 매는 소리(사대소리, 사디소리)’가 가장 많고 밭 밟는 소리(踏田謠), 도리깨질 소리, 방아 찧는 소리 등이 있다. 고기잡이 소리로 해녀들이 전복을 따러 갈 때 노를 저어가면서 부르는 ‘해녀 뱃소리(노 젓는 소리, 멀치 후리는 소리)’가 있다. 그리고 일하며 부르는 소리로 땀뚝질하면서 부르는 ‘고랫소리’, ‘가래질소리’, ‘꿀 베는 소리’, ‘툭질소리’, ‘방앗돌 굴리는 소리’ 등이 있다. 또한 말총으로 망건, 탕건 등을 짜며 부르던 노래들도 있다.

이러한 노동요에는 당시 생산 활동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나타나 있다. 특히 선유가(船遊歌, 어부가)에서는 송당 ‘되방이 짓기’, 함덕 ‘신작 부비기’, 조천 ‘망건 틀기’, 신촌 ‘양태 틀기’, 별도 ‘탕건 틀기’, 도두 ‘모자 틀기’, 고내, 애월 ‘기름장사’, 대정 ‘자리 짜기’, 김녕, 갈막 ‘태와 장사’, 어등, 무주 ‘푸나무장사’, 종달 ‘소금장사’, 정의 ‘질삼 틀기’ 등 마을마다 지역특성에 맞게 성행했던 가내수공업이나 부업활동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당시의 생산 활동, 경제생활, 경제적 행위, 경제현상 등과 제주경제사와의 연관관계를 모색해 볼만 하다. 이를 통해 제주민요로 보는 제주경제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요와 경제, 제주민요와 제주경제사를 융합(融合)한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제주지역 노동요를 9개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표적인 노동요를 골라 총 20개의 제주지역 노동요가 가지는 제주경제사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노동요(밭 밟는 소리, 김매는 노래, 뚝거름 불리는 소리, 마당질 소리), 어업노동요(해녀노래, 출가물질노래, 갈치 낚는 노래, 테우 젓는 노래), 목축노동요(나무 내리는 소리, 꿀 베는 소리), 임업노동요(나무 베는 노래, 대툭질 소리), 수공업노동요(양태노래, 망건노래, 탕건노래), 가내공업노동요(불미소리), 토목노동요(흑질 하는 소리, 망데기 질 드리는 소리), 운반노동요(방앗돌 내리는 소리), 체분노동요(땀돌 가는 노래) 등이다.

이 글의 순서는 1장 서론과 2장 이론적 고찰에서 민요의 경제사적 함의를 탐색하고, 3장에서는 9개영역 노동요의 제주경제사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4장 결론으로 마무리하였

다. 이 같은 학제간(學際間) 연구로 제주경제사 연구를 내실화하고 나아가 ‘제주학(濟州學)’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 II. 이론적 고찰

### 1.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제주민요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 문학, 음악학을 기반으로 ‘민요학’에서 탁월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학문적 성과는 제주민요연구의 선구자인 김영돈 교수의 『제주의 민요』(1999), 『제주도 민요 연구』(2002) 등에 소중하게 담겨있다. 이후 제주민요에 관한 많은 논문과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대표적으로 조영배의 『태초에 노래가 있었다』(2009), 변성구의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2007), 양영자의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2007), 『제주학으로서 제주민요』(2017) 등이 있다. 최근 마을조사 형태의 국립무형유산원의 『제주민요』(2020) 등이다.

민요연구 1.5세대라 할 수 있는 좌혜경 박사는 지난 40년간의 본인연구를 포함한 기존 성과물들을 기초로 현장에서 직접 구술, 채록한 민요들을 집대성한 『제주민요사전』(좌혜경 외, 2015) 발간에 공동 참여했다. “기존 채록된 영상, 음성, 구술, 디지털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주 전역의 창자(唱者)들의 노래를 수집하고 디지털화 한 600여 편 중 가장 원형성이 잘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정한 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가사채록과 음악적인 채보를 진행하였다”(좌혜경 외, 2015: 3). 이를 <제주연구원 제주학아카이브> 유형별 정보> 구술(음성)> 민요>에 디지털 아카이브화 하여 제주민요에 관한 원자료들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민요와 경제학을 융합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는 김상규 교수가 독보적이다. 김상규의 「우리나라 산업별 민요의 경제적 함의」(2016), 『경제교육연구』 제23권 1호, 51-84), 「우리나라 지역별 민요를 활용한 경제교육」(2017), 『경제교육연구』 제24권 1호, 65-97), 『민요와 경제학의 만남』(2017) 등이다. 이 연구들은 우리나라 전 지역의 민요와 경제학, 경제교육과의 학제간 연구를 시도한 최초의 연구로 ‘민요의 경제학적 함의’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민요와 경제의 융합’이며 우리나라 전 지역 민요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제주민요나 제주경제사 분야에 대해서는 미처 거론하지 못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제주민요와 제주경제사를 융합한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 2. 제주민요의 경제사적 요소

경제사(經濟史)는 경제와 경제현상의 역사, 즉 과거의 경제와 경제현상의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유광호(1986: 23)는 경제사연구의 주요대상으로 자연, 인구, 정신·종교, 개인, 사회집단, 국가, 기술, 산업조직, 산업, 화폐·가격, 국제관계, 노동, 이윤추구, 경제성장과 복지증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대별하면, 경제학의 관점인 경제구조, 경제조직, 경제현상, 경제학개념 등과 생산적 관점의 노동과 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그동안 제주경제사 연구에 사용되었던 자료 대부분이 공식자료, 관찬사료들이다. 그 자료들은 구성원들의 실생활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연성자료(soft data)를 적극 발굴·축적하는 일이 중요하다(유광호, 1986: 48). 예를 들면 구술, 민간인의 기록, 공인들의 회고록, 문학작품(민요, 설화 등), 신문 등이다. 이런 비공식연성자료를 이용하여 공식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시 실제 모습의 재현(再現)에 힘써야 한다. 제주민요를 활용한 제주경제사 연구 역시 이러한 시도의 하나이다.

<표 1> 경제사의 주요 연구대상(유광호, 1986)

자연	자연전체의 변화	기후, 화산, 지진, 전염병, 농작물 해충, 가축전염병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적응	국토, 경작지, 산림, 지하자원, 도시성립, 건설, 산업시설, 공업단지, 공해, 반복지(反福祉)
인구	노동력과 수요의 크기	총인구, 인구구성, 평균수명,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인구증감 요인	전쟁, 질병, 영양상태, 이민, 의술 발달, 문화, 의식상태
정신·종교	사상·종교	사상, 종교
	사회규범과 사회의식	사회규범, 경제윤리, 경제의식
개인	개인이 경제에 미친 영향	기업가, 정치가, 발명가, 기술자, 학자, 사회 활동가, 행정가
사회집단	사회집단 간 경제의 상호작용	가족, 혈연집단, 신분, 계급, 계층, 동직자, 이해단체, 사회운동
국가	정치·법률	국가체제, 정치·경제제도, 지배구조, 대외정책(전쟁포함), 경제정책, 사회정책, 경제관련 법률·제도
	경제의 상호작용	
기술	협업의 기술	도구 및 기계, 원료 및 재료, 동력, 분업·생산방법, 신상품, 교통·통신
	광업의 기술	문자·숫자사용, 계산 및 통계기술, 도량형제도, 경영기법, 경제계획·예측, 경제발전전략
산업조직	산업조직	생산조직, 소비조직, 분배조직, 유통조직
산업	1차산업	수렵·채집, 목축업, 농업, 임업, 어업
	2차산업	광업, (수)공업
	3차산업	상업, 교통, 통신, 서비스업

화폐·가격	화 폐	화폐의 기원, 화폐의 종류, 화폐의 기능, 화폐의 대체물, 관련 제도정책
	가 격	가격의 결정요인, 물가수준과 변동, 인플레이션
국제관계	국제무역	무역, 국제수지, 경제원조
	국제관계	경제협력, 식민·제국주의
노동	노동조건	임금, 임금의 노동조건, 인력개발,
	노동조직	노동시장, 노동조합, 취업·실업률, 노동운동
이윤추구	이윤추구	이윤의 발생, 이윤의 역사적 존재형태, 이윤의 계측
	사회적 분위기	이윤추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경제성장 과 복지증진	경제성장과 발전	총생산액(GRDP, GNP), 경제구조, 경기변동(공황)
	소득분배	이자, 임금, 지대, 분배구조
	생활수준과 복지	1인당 복지수준, 기아극복, 문화생활(여가), 의료·교육

<표 1>과 같은 경제사의 주요 연구대상을 제주민요에 적용시켜 보면 <표 2>와 같이 제주민요의 경제사적 요소를 시험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

<표 2> 제주민요의 경제사적 요소

자 연	영주10경	영주십경가, 산천초목, 이야홍, 계화타령, 너녕나녕, 오돌또기
정신·종교	장례의식	행상노래(행상소리), 상여노래(상여노래), 진토군파는노래(진토군 파는소리), 진토군소리, 술기소리, 달구질노래(달구소리), 평토소리, 꽃염불소리
	무속의식	탐벌소리
	불교의식	회심곡
사회집단	집안, 시집살이	시집살이노래, 집안노래,
산업노동	농 업	따비질노래, 밭가는노래, 곰방메노래, 씨레질노래, 밀레질노래, 돛거름불리는노래, 밭밟는노래, 김매는노래, 보리훅는노래, 마당 질노래, 마소모는노래
	목축업	마소모는노래, 꼰베는노래
	어 업	닷감는노래, 노젓는노래, 멸치후리는노래, 갈치낚는노래, 해녀노래, 테우노래
	임 업	나무베는노래, 나무켜는노래, 나무쪼개는노래, 나무깎는노래, 나무내리는노래
	목 축	마소모는노래, 꼰베는노래, 흙덩이부수는노래
	운반노동	마소모는노래, 연자맷돌옮기는노래, 물건나르는노래
	제분노동	절구방아짚는노래, 연자방아짚는노래, 맷돌질하는노래
	가내공업	풀무질소리하는노래
	가내수공업	망건뜨는노래, 양태뜨는노래, 탕건뜨는노래, 모자뜨는노래
	토목	땅다지는노래, 목도하는노래, 흙이기는노래, 짚두드리는노래, 벽 바르는노래, 상량하는노래
생활수준	생활고	자립·신세한탄의 노래, 신세·팔자한탄의 노래

### 3. <민요로 보는 제주경제사> 연구의 착안점

앞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제주민요에는 노동요가 가장 많다. 이 글은 ‘민요로 보는 제주경제사’ 연구<sup>1)</sup>의 시론(試論)으로 우선, 제주지역 노동요를 9개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표적인 노동요를 선별하여 총 20개의 제주지역 노동요가 가지는 제주경제사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노동요(밭 밟는 소리, 김매는 노래, 덧거름 불리는 소리, 마당질 소리), 어업노동요(해녀노래, 출가 물질 노래, 갈치 낚는 노래, 테우 젓는 노래), 목축노동요(나무 내리는 소리, 꼴 베는 소리), 임업노동요(나무 베는 노래, 대톱질 소리), 수공업노동요(양태노래, 망건노래, 탕건(노래), 가내공업노동요(불미소리), 토목노동요(흑질 하는 소리, 망대기 질 드리는 소리), 운반노동요(방앗돌 내리는 소리), 제분노동요(맷돌 가는 노래) 등이다 (<표 3> 참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경제사연구의 전 분야로 연구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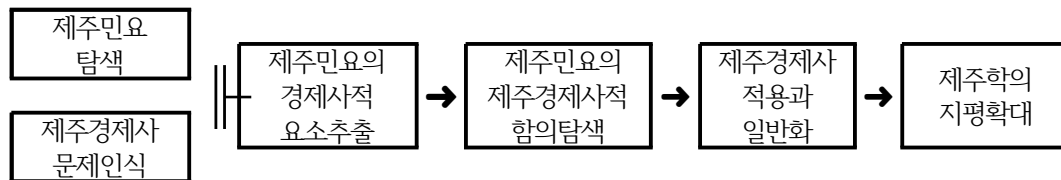
**<표 3> 제주노동요의 산업별 분류**

산업노동	분류	소리 명칭
농업노동요	따비질노래	따비질소리, 따비왓가는소리, 새왓이기는소리
	밭가는노래	밭가는소리
	곰방메노래	곰베질소리, 흑병에부수는소리, 병애비수는소리
	써레질노래	써레질소리
	밀레질노래	밀레질소리
	덧거름불리는노래	걸름불리는소리, 보리걸름불리는소리, 덧걸름내는소리
	밭밟는노래	밭밟는소리, 밧 불리는소리, 조밧 불리는소리
	김매는노래	검질매는소리, 사데소리, 흥애기소리, 아웨기, 웅천검, 상사소리, 더럼소리, 더럼마소리, 다벌소리, 농부가, 짝른사대, 진사대, 추침사대
	보리훅는노래	보리훅트는소리
	마당질노래	도깨질소리, 마당질소리, 타작소리
어업노동요	마소모는노래	머쉬모는소리, 텃머쉬모는소리, 쉼머는소리
	닷감는노래	닷감는소리, 맬후리는소리
	노젓는노래	베젓는소리, 터우젓는소리, 세터띄우는소리
	멸치후리는노래	멸후리는서우제소리, 멸치잡는소리, 멸후리는소리
	고기(갈치)낚는노래	괘기나끄는소리, 괘기나끄는홍생이, 갈치나끄는소리, 갈치나끄는 홍생이
	해녀노래	해녀노젓는소리, 노젓는소리, 줌녀노젓는소리, 네젓는소리, 해녀물질소리, 테웍짚고나가는소리
테우노래	선유가, 테우만드는소리	

1) 향후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다면, 이를 ‘민요제주경제사’, 혹은 ‘제주민요경제사’라고 명명할 수 있음.

목축노동요	마소모는노래	몰모는소리, 소모는소리, 멍쉬모는소리, 텃멍쉬모는소리
	꿀베는노래	출비는소리, 흥애기소리
임업노동요	나무베는노래	낭꾼치는소리, 낭꾼치는툽질소리, 낭꾼치는도치질소리, 대툽질소리, 흥기도치소리
	나무켜는노래	낭싸는소리, 툽질소리
	나무쪼개는노래	낭개는소리, 낭개는도치질소리
	나무깎는노래	낭까끄는소리, 귀자귀소리
수공업노동요 (관망 제조)	나무내리는노래	낭내리는소리, 낭끗어내리는소리
	망건뜨는노래	망긴뭇는소리, 망긴좁는소리
	양태뜨는노래	양태뭇는소리, 양태좁는소리
	탕건뜨는노래	탕근뭇는소리, 탕근좁는소리
가내공업 (오엽)노동요	모자뜨는노래	모자뭇는소리, 모자좁는소리
	풀무질소리하는노래	뚝뚝불미소리, 토불미소리, 불판불미소리, 디뎀불미소리
토목노동요	흙덩이부수는노래	흙덩이바수는소리
	땅다지는노래	집터다지는소리, 달구소리, 원달구소리
	목도하는노래	산태질소리, 목도질소리
	흙이기는노래	흑질소리, 흑긱가는소리, 질뜨림소리, 흑이기는 소리, 흑긱이기는 소리
	짚두드리는노래	짚두드리는소리
	벽바르는노래	새벽질하는소리, 흑질하는소리
운반노동요	상량하는노래	상량소리
	마소모는노래	몰모는소리, 소모는소리, 멍쉬모는소리, 텃멍쉬모는소리, 낭끗어내리는소리
	연자멧돌옮기는노래	방멧돌끗어내리는소리, 몰방애동 끷어내리는소리
제분노동요	물건나르는노래	산태질소리, 목도질소리, 낭끗어내리는소리
	절구방아짚는노래	방애짚는소리, 남방애짚는소리
	연자방애짚는노래	연자방애돌리는소리, 몰방멧돌소리
	멧돌질하는노래	꺾레꺾는 소리

이상과 같은 연구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주민요로 보는 제주경제사

### Ⅲ. 제주노동요로 보는 제주경제사

#### 1. 농업노동요

##### 1) 밭 밟는 소리

<밭 밟는 소리>

이 산중에 놀던 몰아 저 산중에 놀던 몰아  
고비 고비 돌아 나오라 이소장에 놀던 몰아 이소장으로 들여보내라  
저 산 앞에 안개 끼면 장남 두 일뿔 논다 흐는구나  
굽이굽이 돌아오라 유월철이 당혹엇고나 간들간들 부는 바람에 귀 주율이명 걸어 보게  
느 구실이 무신 구실 멩에 씨민밭 갈곡 멩에 벗이민 밭 불린다  
노픈 되랄 뒤덩 가고 흐저 뿔리 나가게 조랑 나경 대죽낭 고찌 요물랑 뒤경 구실고찌

돌랑돌랑 걸으라 밧도 물밧고 일기도 좋구나 이런 날에 요런 일 흠이사 놀기보단 좋고나  
일 년 열두 돌 중소흔 이 농소를 무싱걸 흐코 요물 먹곡 뒤치 먹는 너영 나로구나  
마당고찌 밧이랑 불랑 구름고찌 종지랑 세왕(위)  
낭기라근 혼자뒤게 고고리도 혼자 뒤게 무쇄 요름 올려줍서(좌혜경 외, 2015: 31-37)<sup>2)</sup>

이 민요는 ‘밭 밟는 소리’이다. ‘밭 밟는 소리’는 보리나 조의 씨앗을 뿌린 후 그 씨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땅을 밟는 작업할 때, 소나 말을 밧에 몰아넣고 그 땅을 밟도록 채찍질하며 부르는 ‘밭일노래’이다. 소 두 마리, 말 한 마리의 경우 가장 큰 소를 선두로 다음 다른 소, 맨 뒤 말을 세워 밧줄로 연결한다. 소와 소, 소와 말의 간격은 대략 한 척이며 선두 소의 양쪽 뿔에 다른 밧줄을 걸어 고삐로 삼았다. 사람은 소와 말의 중간 조금 뒤쪽 말머리 곁에서 ‘밭 밟기 노래’를 부르며 우마를 몰았다.

제주지역 토양은 대부분 현무암질 풍화물과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화산토이다. 화산토는 형성시기에 따라 고화산토와 이보다 2~3배 이상 척박한 화산회토로 구분한다. 화산회토는 물을 머금으면 재(灰)처럼 큰 공극률로 인해 쉽게 투수되어 함수량이 낮다. 남동부를 중심으로 제주도면적의 83%를 차지하는 화산회토지대는 산성(酸性)이며 잡초가 무성해

2) 이 글의 모든 민요명과 가사는 참고 인용한 문헌에 나와 있는 데로, 창자(唱者)들에 의해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는 제주어로 표기했음. 이를 표준어로 옮기는 작업은 관련 어문학, 국문학 전문가의 몫이라 생각함.



기장(稷, 黍)과 조(粟) 같은 서속류(黍粟類)를 주로 재배한다(남석진, 1987: 54).

입경(入境)크기에서 미사식양토(微砂埴壤土)로 분류되는 화산회토 ‘뜯 땅’은 공극률이 70%가 넘는다. ‘뜯 땅’에서는 파종된 씨앗이 발아하기 전에 소나 말로<sup>3)</sup> 밟아주지 않으면 토양이 건조해지고 부석거리 바람에 날린다. 그러나 밟을 밟아 주면 모세관현상이 촉진되고 토양의 바람 날림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진압농법’이라 한다. 이렇게 씨앗을 땅속 깊이 파종한 후 그 위에 흙을 덮고 단단히 다져 줌으로써 씨앗주변의 토양 수분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답압(踏壓)이 이루어졌다.

## 2) 김매는 노래

### <검질 매는 소리>

검질 매게 굴 너른 밧디 입을 돌앙 메여 가게 실픈 일랑 그만두게 요 농국을 지여다근  
 녀영 나영 고찌 먹게 저디 가는 저 선비아 검질 매영 살아 보게 메와 들멍 나여 매게  
 검질 짓곡 굴너른 밧디 사테로나 우경 매게 앞 멩에랑 들어오곡 뒷 멩에랑 물러가라  
 검질 짓곡 굴너른 밧디 조라움이 네 벗이로고나 구물코이 삼천코라도 베릿배가 주쟁이여  
 낮 요기호른 담벳불이랑 부찌기도 말아근에 재게들어나 사라 저 헤 지기 전에 재게 뜰게  
 너른 밧디 줌씨 뿌런 붕에 눈을 부릅 뜨멍 삼각수를 거두우멍 앞 멩에로 혼저 가자  
 넓이 넓곱 고지 질곡 밧 검질도 짓인 밧디 혼 굴 메고 돌아 보난 점심때가 넘여 감저  
 두 굴 메고 돌아 보난 담배 참이 다비엇고나 쇠 굴 메고 돌아 보난 다름 징심 다 나와도  
 요내 징심 안 나왓저 너른 목에 편개치듯 좁은 목에 베락치듯 화닥화닥 메여보게(좌혜경  
 외, 2015: 38-39)

이 민요는 ‘검질 매는 소리’이다. 제주지역 전통농업에서 제초는 생산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농사일이다. 예전 제주지역 주요재배작물은 조, 보리, 옥도, 메밀, 피 등과 같은 밭작물이다. 밟은 논에 비해 잡초가 많다. 제초는 대부분 여성이 담당했기 때문에 여성노동력이 강화되었다. 제주농업은 여성노동비율이 57.5%를 차지한다(전국평균 32.2%). 제주농촌에서, 남자들은 기경(起耕), 진압(鎭壓), 부역, 토역, 건축, 어업, 기타 힘쓰는 일을 한다. 여성들은 맷돌, 절구, 잠수, 망건, 탕건, 갓 걸기, 물 길기, 세탁, 재봉, 요리 등을 한다. 남녀 공동으로 제초, 수확, 운반, 가사 등을 하였다.

보리는 음력 2~3월경 김매기 한다. 보리는 보통 1회 제초작업 한다. 조 농사는 보리 농사와 달리 3~4회 김매기 한다. 조는 파종 후 25일 전후 ‘초벌 검질’, ‘초벌 검질’ 후 15

3) 혹은 ‘남태’나 ‘돌태’로 흙을 다진다.

일 후 ‘두벌 검질’, 다시 15일 후 ‘세벌 검질’ 맨다. 콩 농사의 김매기는 6월 25일~7월 5일 경 ‘초벌 검질’, 7월 15일~25일 경 ‘두벌 검질’ 매준다. 메밀은 한번 제초하거나 안하는 경우도 있다. ‘산디(밭벼)’는 네 번 제초작업 한다.

제주도에서 ‘검질’ 때는 농기구는 ‘호미’이다. 제주도 ‘호미’는 ‘골갱이(주골갱이)’와 ‘삽골갱이’가 있다. ‘골갱이’의 형태는 ‘숨베’와 날 너비가 같으며, 날이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다. ‘숨베’는 날이나 자루의 길이에 비하여 모양이 긴 편이다. ‘삽골갱이’는 ‘골갱이’에 비해 날의 등이 뾰족하게 솟아 있어 날은 반달모양이지만 세모꼴을 이룬다. ‘골갱이’는 흙이 부드러운 밭의 김을 땔 때 사용하며, ‘삽골갱이’는 가물어 땅이 단단할 때 사용한다.

### 3) 덧거름 불리는 소리

<덧거름 불리는 소리>

저 구석에 허뚝허뚝 보리씨가 보아 겹구나 혼저덜 들어상 즈근즈근 곶로로 불르라  
씨난디 곶로로 불리지게 즈근즈근 어염 웃이 돌아상 잘 덜 불르라  
입동 시월절이 지나고 소설 시월중이 들어서난에 보리 갈 때가 뒤텔구나  
큰 통시에 거름이랑 내여당 벨진밧디 가져가고  
죽은 통시 거름이랑 씨 묻영 돌진 밧테레 실어갈 곶로 흐라  
보리농사도 절기양 제시기에 갈아사 보리섬수도 하영난땡 흐는구나(좌혜경 외, 2015: 63-66)

이 민요는 ‘덧거름 불리는 소리’이다. 특히 보리농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덧거름’ 작업을 하며 부르던 노래로 ‘통시’에서 꺼낸 ‘덧거름’을 씨와 함께 밭에 뿌린 다음, 이를 밟으며 부르던 농업노동요이다. ‘덧거름’은 예전 ‘통시’나 ‘덧통’에서 만들었던 퇴비(堆肥)이다. ‘덧거름’은 잡초, ‘감태’, 짚을 마당에 깔고 어느 정도 썩힌 다음 ‘통시’(변소, 화장실)에 담아 돼지오줌과 변, 사람오줌과 변을 섞어 만든다. 보리씨앗을 ‘덧거름’에 섞고 밭에 뿌린 뒤 날아가지 않고 잘 밟아하도록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밟거나 뒤집어 준다.

‘덧거름’은 보리농사에 주로 사용했다. ‘통시’에서 꺼낸 ‘덧거름’을 마당에 쌓아놓고 보리씨앗을 뿌린 다음 소나 말로 잘 밟아 한군데 모아 둔다. 그런 다음 이 ‘덧거름’을 밭에 옮겨 골고루 뿌린 후 소나 말로 ‘잠대질’해 씨앗을 묻었다.

한편 예전 멀치가 많이 잡혔던 월정리, 하도리, 행원리 등지에서는 음력 5월부터 어획한 멀치를 말려 대맥(大麥) 과중 때 뿌렸다. 장마로 어획한 멀치가 마르지 않으면, 재(灰) 속에 묻어두었다가 함께 시비(施肥)했다. 멀치와 함께 ‘뚝복’을 거름으로 사용했다.

해변으로 올라오는 ‘뚝뚝’을 건져내 ‘눌 늘어’ 두었다가 대맥을 과종할 때 고랑에 뿌린다.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 제주농촌에서는 ‘뚝거름’, ‘쇠거름’, ‘녹비(綠肥)’, ‘인뇨(人尿)’, ‘재(灰)’, ‘어비(魚肥)(멜, 각재기, 고등어, 갈치 등)’, 해조류(뚝뚝, 감태, 몰랑 등), 모래(객토용), ‘우마분(牛馬糞)’ 등을 비료로 이용했다.

예전 제주지역 해안마을은 거름이 다양하고 풍부했던 반면 산간마을일수록 거름을 구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산간지역은 ‘산디’ 짚을 대나무에 깔아 시비하거나 ‘작지왓<sup>4)</sup>과 ‘마뜨른밭<sup>5)</sup>에 우마를 방목하고 그 분뇨(糞尿)로 시비효과를 얻으려 했다. 이외에 ‘고린장(醬)’이나 썩은 ‘멜 짓’을 거름대용으로 사용했다.

#### 4) 마당질 소리

<마당질 소리>

올로 요레 누게나 앓고 설룬 정례 말이로구나 두드렘시민 부서나진다  
흔번 뜨렁 열방울씩 두번 두드렁 백방울씩 부서나지라 깨어나지라 두드렘시민 굴축난다  
질긋집에 도실낭 싱경 드냐 쓰냐 맛불인 셔도 내 일 도웰이 하나도 웃구나  
흔착 가달 땅에 붙이곡 흔착 중에 높이 들고 물착물착 두드려 보게  
내 인심이 날만 흐면 오뉴월 보리마당 나 혼자 지리  
놈이 첩광 소낭기 브름은 살맛이 웃고 지세 어명광 오롬엿 들은 등글당도 사를매 난다  
간간 놀젠 간섭에 가난 가난 흐명 이 눈물이라  
생일에도 호사가 있다 먼딛 사름 보거나 좋게(좌혜경 외, 2015: 51-56)

이 민요는 ‘마당질노래’이다. 다른 농촌처럼, 제주에서도 밭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보리나 조, 콩 등 잡곡을 타작했다. 이때 부르는 민요를 ‘도리깨’를 사용해서 ‘도리깨질 소리’, 마당에서 이루어져 ‘마당질소리’, ‘도리깨’로 보리를 타작했기 때문에 ‘보리타작소리’, 콩이나 팥도 ‘도리깨’로 타작하기 때문에 ‘타작노래’라고 했다.

보리는 베어낸 후 말린 다음 ‘보리클’로 이삭을 훑어내어 마당에 10cm 두께로 깔아 ‘도깨(도리깨)’로 타작한다. 간혹 ‘ㄱ시락’을 불에 살짝 태운 다음 ‘태작’ 한다. 장마로 인해 보리가 충분히 마르지 않았을 경우<sup>6)</sup>에 주로 했다.

조는 강한 서북풍에 낱알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강(霜降) 7, 8일 전 베어야 한다. 베어

4) 자갈밭

5) 큰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밭

6) ‘ㄱ시락’이 긴 ‘질우리’ 품종

낸 후 2~3일 간 건조시킨다. 그 다음 ‘ㄹ그리’를 ‘호미’로 잘라 ‘가맹이’나 ‘맹탱이’에 담고 집에 와서 마당에 널어 말린 후 ‘도깨’로 치거나 소나 말로 밟는다. 그 다음 ‘즙진 얼맹질’ 하고 ‘솔팍’에 담아 멍석 위에서 가을바람에 ‘불림질’ 한다.

콩도 상강 무렵 수확한다. 콩 그루는 굳어 말라 버리면 베기 힘들기 때문에 베지 않고 ‘호미’를 대고 뒤로 제쳐 꺾는다. 그걸 마차나 지게에 지어 집 마당으로 나른 다음 마당에서 ‘도리깨’로 타작한다. 타작한 다음 멍석위에서 ‘불림질’ 한다.

피(稗)는 파종하고 나서 3개월 후, 추분 전후 ‘호미’로 줄기를 베어낸다. 베어낸 피를 다발로 묶고 마당으로 운반하여 이삭만 잘라낸다. 이삭을 자를 때 ‘호미’ 몸통을 누르고 ‘호미’ 날을 몸 쪽으로 향하게 한 후, 피 줄기와 이삭을 좌우로 날에 대고 앞쪽으로 밀어 내야한다. 잘라낸 이삭은 마당에서 2일 정도 햇볕에 말린 후 도리깨로 탈곡(脫穀) 한다.

## 2. 어업노동요

### 1) 해녀 물질

#### <해녀노래>

어떤 사름 복도 종양 앓아 살리 우리네는 브름이랑 밥으로 먹곡 구름으로 똥을 싸곡  
물질이랑 집안 삼양 부모 동성 떼여 두곡 오늘날도 물에 든다  
물질뜨랑 베질헝기 선주 사공 놀음이곡 밧데 들렁 밧 잘 갈기 농부 아비 놀음이곡  
밧데 들렁 글 잘 쓰기 선부의 놀음이여 낭도 늙영 고목 웨민 놀단 생이 아니 오곡  
물이라도 몹아지민 놀단 켜기 아니 놀곡 이내 몸도 늙어지민 물질헝기 어렵고나

어떻 흥영 살아 가코 요 물질로 흥여근에 우리 집의 쉼 사카 드로쟁일 사보카  
새끼섬 우의는 올랭이 노는디 시퍼렁흔 바당 우원 요 내 몸이 떼고나  
흔 손에다 밧장 쉼곡 흔 손에다 호미 쉼영 메역 생복 딱다근 어린 즈식 공부흥영  
죄주 판스 시길랴고 바당우의 시달리는 불쌍흔 이내 몸아 어느 제믄 이내 몸도 좀 쇠상  
만나근에 놉광 ㄹ찌 산단 말고 누게를 살류우쟁 악담부담 았를 쓰나  
목심 바청 버실어야 제 살곡 제 먹엄져(좌혜경 외, 2015: 68-95)

이 민요는 대표적인 ‘해녀노래’이다. ‘해녀노래(‘노 짓는 소리)’는 ‘네(노)’ 지으며 물질 작업 나가거나, 출가물질 나가면서 혹은, ‘태워’ 짚고 물에 뛰어들어 헤엄치며 부르던 어업노동요이다. 제주에서 여자아이가 8세 되면 바닷물 들어가는 연습을 하여 10세 되면

어머니에게서 ‘태왁’ 받고, 14세 되면 ‘안경’, ‘호미’, ‘빗창’ 등을 얻어 이후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물질 작업을 한다.

제주해녀는 한 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 물질한다. 임신과 생리기간을 가리지 않고 사시사철 작업한다. 보름마다 되풀이되는 무수기<sup>7)</sup>에 따라 조금 전후한 옛새나 이레쯤 물질을 쉰다. 최고 3분까지 물속에 머물 수 있지만 대개 1분 5초에서 1분 50초 정도 작업한다. 또한 최고 20미터 물속까지 내려 갈 수 있으나 대부분 5.5미터에서 작업한다. 이 잠수를 30회 내지 70회 정도 반복하여 작업하고 난 후 물위로 올라온다. 이후 해변 ‘불턱’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 다시 작업하러 물속으로 들어간다. 건강한 해녀는 이 과정을 하루 3회 또는 4회 정도 반복할 수 있다.

해녀의 연중 작업일정은 해산물 채취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삼은 1~4월, 전복은 5~8월, ‘천초(天草)’는 1~3월, 미역은 2~5월<sup>8)</sup>에 작업한다. 3월에서 9월까지 작업일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해안지역, 혹은 우도지역 해녀의 작업일수가 가장 많다.

## 2) 출가 물질

### <해녀 출가길의 뱃노래>

성산포야 잘이시라 멩년 이 철 춘삼월 나민 살아시민 상봉이여 죽어지민 영 이벨이여  
산지 바당의 배 띄여 노난 소섬 목이 보염구나 선장님이 손을 치난 고동 소리 뺑뺑 남저  
성산 일출 브러 두곡 손안도로 가는 구나 완도지방 넘어 가근 신기 도영 넘어 가곡  
금당아로 넘어 가근 저 큰 바당 다 지나곡 지누리대섬 넘어 가근 나라도도 건당훈다  
나라도를 넘어 가곡 뺑돌바당 지난 본다

돌산을 넘어 가근 솔치바당 건너 가민 남해로다 노양목 사랑도바당 넘어 간다  
물과랑 것도 지나 가근 지제장심포 넘어 가곡 가닥동 곳 지나 가민 등바당을 넘어 간다  
다대 곳을 넘어 가민 부산 영도이로구나  
준등 알을 놈을 준덜 요 네야 상책 놈을 주카 베통 알을 놈을 준덜 요 네착사 놈을 주라  
젓이라젓이라 뒤엿 섬이랑 멀저지곡 앞잇 섬이랑 브디여지라(김영돈, 2002: 245-258)

이 민요는 제주해녀들이 출가하러 떠날 때 부르던 ‘해녀 출가길의 뱃노래’이다. ‘출가(出稼)’는 국내외 타 지역 바다에서 ‘물질’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7) 썰물 때와 밀물 때의 물 높이의 차

8) 혹은 마을규약에 따라 1~4월, 3월 중순~4월

‘바깥물질’이라고 한다. 1880년대부터 일본 잠수기업자(潛水器業者)들이 제주연안 해역에 출어하면서부터 제주 연안어장이 급속히 황폐해졌다. 이러한 어장황폐는 제주해녀의 출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본인 무역상이 등장하여 해산물의 경제적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해녀들의 생산욕구가 동반상승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생산지인 ‘바당밭’을 찾아 제주해녀들이 ‘바깥물질’ 나갔다.

제주해녀의 출가는 1895년 부산 앞바다 영도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후 해녀들은 한반도전역과 일본의 태평양 연안지역, 대련(大連), 청도(淸島)까지 출어(出漁)하였다. 1910년대 전반 출가자 수는 25,000명, 1910년 말 부산, 울산지역에 출가한 해녀의 수는 4,000명 정도였다. 1924년 일본의 직항로(直航路) 개설은 농촌노동력 못지않게 해녀들의 도일(渡日)이 급증했다.

한반도에 출가한 제주해녀의 분포를 보면, 동해안지역이 가장 많고 북서부 해안지대가 그 다음, 남부해안지역, 북부해안지역 순으로 분포하였다. 아마도 해안지형 및 해저(海底) 지형, 조류, 풍향 등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추측된다.

1930년대 중반 일본 출가해녀는 1,601명이다. 대마도(對馬島) 700명, 정강(靜崗) 265명, 동경(東京) 215명, 고지(高知) 135명, 장기(長崎) 65명, 녹아도(鹿兒島) 55명, 천엽(千葉) 51명, 덕도(德島) 10명, 도근(島根) 10명 등이다. 이들 중에는 출가 후 그곳에 정착하고 결혼하여 생활한 경우도 있다(제주도청, 1937: 68).

### 3) 갈치 낚는 노래

#### <갈치 낚는 노래>

강남 바당에 노을던 갈치야 가다나 집의 곳 오다나 제인 걸어 나가지라  
나 낚신 두 나 예잇 멩게냥 순이 웨여 가지고 나 술은 두나 예잇 썩은 칩줄이로 구나  
어덜 갖든 서낭님은 으웃 갈치 싹 노는 곳으로 뱃머리를 돌려나 줍서  
팔만 갈비잇 성산 부틀동 듯 말뚝 허민 이 가는 게 예잇 갈치바당 정통으로 웨어진다  
동서들아 메 올리고 닷줄을 서비 뽕돌 디리쳐서 수심이나 재어보게  
서른 닷발 ㄱ리에서 서비 뽕돌 허리밀창에 닿는 구나  
한 발 올력 두 발도 올력 갈치 싹 노는 ㄱ리나 찾아들 보자  
열닷 발 ㄱ리에서 웃 쩍긋하고 흑 물어 멩기는 구나  
배쌈에 으지직 으지직 멩정갈치 쌍끝이가 틀림이 없구나

오늘 멩정갈치 쌍끝이 꿈이 틀림없이도 들어 맞암구나

강남 바당에 노을던 강 갈치야 하아 가다나 집의 곳 오다나 집의 걸으멍 서곳 나가지라  
들불 타서 동 밖으로 베질을 흔 적 소섬 서머리 바당에 들어 가졌구나  
물속 깊이 놀던 갈치 잇달려 들라 다 살생해 보자  
멍정갈치 배쌈 ㄱ득 채웠으니 이만 허민 만선이라도 불릴 만 허구나  
강남 바당에 노을던 갈치야 가다나 집이 곳 오다나 제인 곳 걸어나지라(좌혜경 외,  
2015: 304)

이 민요는 ‘갈치 낚는 노래’이다. ‘갈치 나끄는 소리’는 ‘테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갈치를 낚으며 부르던 어업노동요이다. 대부분 밤에 낚는다. 갈치를 잡으러 가서 어로작업의 고충을 노래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담담하게 풀어나간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체를 이용하여 갈치가 잡히기를 기원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음력 3월부터 5월 사이에 낚는 갈치를 ‘봄 갈치’, 음력 7월부터 10월 상강 사이에 낚는 갈치를 ‘ㄱ실 갈치’라 한다. ‘봄 갈치’는 아침 일찍 먼 바다로 나가 해질 때까지 낚지만 가을에 낚는 ‘ㄱ실 갈치’는 밤에 낚는다. 갈치낚시는 배를 고정시켜 길이 200m 정도 되는 ‘물음 갈치술’을 펼쳐 놓고 갈치를 낚는 방법과 낚싯줄 감아두는 ‘얼레’인 ‘차세’에 길이 8m 정도 ‘홀림 갈치술<sup>9)</sup>’을 매달고 어스름 저녁 무렵이나 달밤에 ‘돛 포’ 펼쳐놓고 배를 흘려가며 갈치를 낚는 방법이 있다. ‘홀치기’는 우도에서 전승되는 갈치낚시다. ‘끄슬퀴’라고 고도 한다. 줄에 자잘한 ‘봉돌’ 대신 ‘고지돌’이라는 긴 ‘봉돌’이 달려 있다.

#### 4) 테우 젓는 노래

<테우 젓는 노래>

한라산 동령하에 백년 묵은 구상나무 베여다가 떼배를 무어놓고  
존날 존택일 받아근에 넓은 바당 한가운데 친구선 떼배나 띄워놓고  
동해 바당에 요왕님전 이내 소원 들어 줍서 석 달 열흘 백일 정성 들었쑤다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릿간에 화장아야 물 때 점점 늦어나진다

춘풍추우 가는 세월은 어언 삼년이 지나쳤건만 황천 가신 우리아내 언제나 소식오리  
호강에 재와서 내 여기 왔나 돈이나 금전이 원수가 되는 구나  
우리 부모님 날 날 적에는 부귀영화를 누리시라고 했건만는  
해구청산 불보재기 신세가 웬 말이나(좌혜경 외, 2015: 96-98)

---

9) 갈치 낚는 줄낚시 어구

이 민요는 ‘테우 젓는 노래(홍생이 소리)’로 ‘선유가(船遊歌)’이다. 어부들이 자리돔이나 갈치 낚으러갈 때, 혹은 해녀들이 가까운 바다에 물질을 나갈 때 노 저으며 부르던 어업 노동요이다. ‘테우’는 연안에서 자리와 갈치를 낚거나 해초 채취할 때 사용했던 통나무배이다. ‘떼배’, ‘터위’, ‘테’ 등으로 불렸다. ‘테우’는 여러 개의 통나무를 엮어 만들었다. 선체가 수면에 밀착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풍파에 전복되지 않아 안전한 편이며 건져낸 해초를 바로 적재하기에 편리하다. 그러나 ‘테우’는 주로 어부들이 노 젓는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다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서둘러 대피하기가 어렵다.

원래 ‘테우’는 한라산 구상나무로 만들었으나 80~90년 전부터 한라산에 구상나무가 귀해지자 ‘숙대낭(삼나무)’으로 만들었다. 길이 5m, 너비 2m 가량인 ‘테우’는 10여 개 나무토막을 평탄하게 놓고 기다란 ‘목전’을 가지고 앞 뒤 두 자리를 뚫어 결합한다. ‘테우’ 한 척 만들기 위해 보통 7~11개의 통나무가 필요하다.

선미 쪽 통나무는 직경 20~40cm 정도, 선수 쪽 통나무는 직경 15~20cm 정도이다. 이 통나무를 ‘장쇠’ 끼우기, ‘멍에’ 세우기, ‘평계틀목’ 설치, ‘상자리’ 세우기 과정을 거쳐 ‘돛대’ 구멍을 설치하고 부분 부분에 ‘새역’을 박아 마무리한다. ‘선미(고물)’ 쪽은 폭 170~240cm, ‘선수(이물)’ 쪽은 폭 140~180cm 정도, 전체길이가 400~550cm 정도이다. ‘테우’를 이용한 어로작업은 보통 3월에서 10월 사이에 행해지므로,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은 이를 해체하여 잘 보관해 두었다가 어로기(漁撈期)가 되면 재조립해 사용했다.

### 3. 목축노동요

#### 1) 나무 내리는 소리

##### <나무 내리는 소리>

이낭 끊어 놓은디 어멍 꺾어 느리와 보코 쉼로 흥영 꺾영 갑주게 어멍흡니까  
우리 쉼 약허곡 집 쉼나 메와보카 저리 메와사 꺾읍니다게 낭이 커부난 마썸  
경허주 게민 거 우리쉼가 부룽이난 게민 우리쉼 게민 뒷상 박인 안 쉼건디  
집의 쉼 선상허카 게건 선상 흡주게 요놈의 쉼가 암쉼 봐전 썩썩허곡 경 흥는 전레우다  
숫쉼 보민 아메나 메와 보주 코삐 틀엇저 선상 쉼 잘 심어 이 뒷상 쉼 거루밀리메(좌혜  
경 외 2015: 111-114)



이 민요는 ‘나무 내리는 소리’이다. 제주에서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어 끌여오거나, 소나 말의 등에 짐을 싣고 다니며, 거름을 밭으로 운반하고, 풀이나 곡식을 실어 나를 때 소나 말을 이용했다. 그래서 민요 가사 내용 역시 마소를 부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도 마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므쉬집(마소집)’을 조직하여 목초지 관리, 마소용물 관리, 우마 방목 관리, 진드기 구제, 낙인찍기 등의 일을 계원들 공동 또는 당면제로 운영하였다. ‘므쉬계’, ‘번췌계’, ‘곶췌계’, ‘테우리집’, ‘췌테우리돌음계’, ‘소먹이계’, ‘낙인계’ 등으로 조직된다.

‘므쉬 벵작(마소 번작)’이란 소 없는 사람이 소 많은 사람의 암소를 길러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 집에서 기르다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반분(半分)하고 어미소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목축관행’을 말한다. 이 ‘벵작췌’를 ‘뽕췌’라고도 한다. 소뿐 아니라 말도 이 같은 방식으로 ‘벵작(병작)’을 했다. ‘벵작’으로 새끼를 낳아 기를 경우 봄에 소에게 농사일을 부리면 대신 여름동안 소를 먹이고 가을에 임자에게 돌려준다.

‘테우리’는 목축에 종사하는 목자(牧者)를 의미한다. 관리하는 가축에 따라 ‘소테우리’ 혹은 ‘말테우리’라 부른다. ‘테우리’ 들은 자기 소유의 마소를 키우거나, 일정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마소들을 키우거나, 마을공동목장에 고용되어 마소를 키웠다. 대체로 음력 3월 청명(淸明)에 마소를 공동목장에 올린 다음 음력 9월, 상강(霜降) 이후 하늬바람 불고 공동목장의 풀이 마를 때까지 ‘테우리’가 마소를 담당했다. 인근 해안마을이나 중산간 마을에 거주하면서 공동목장으로 올라가 마소의 방목상태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경우 공동목장 내 만들어진 ‘테우리 막’에 일시 거주하였다(송성대강만익, 2001: 77).

‘테우리’ 들은 마소를 관리하는 일 이외 ‘조밭 밟는 일’이나 ‘바령팻’ 만드는 일을 했다. 단오를 지나 보리를 거둬들인 밭을 갈아엎고 좁씨를 뿌린다. 이때 씨앗을 땅에 잘 심기 위해 말 때를 밭에 몰아넣고 씨를 뿌린 밭을 밟는다. 이를 ‘조밭 밟기’라 했다.

## 2) 풀 베는 소리

### <풀 베는 소리>

산범 7튼 호미로 무착 무착 비여 나지라  
 여름 석 덜 비영 가을 석 덜 먹을 출을 살랑살랑 비어나 보자  
 저 산 아래 안개가 끼면 두 일되 열나홀 고문다 허는구나  
 날씨는 비가 오람직 해여 가고 갈산절산 허여 노난 어뎡 허코  
 한라산에 먹던 므쉬덜아 동지선달 설한풍에 무얼 먹고 살리

어리렁 허민 산도 가곡 떠리렁 허민 물도 가곡 밤낮 어시 요일만 허는 구나  
산도 설고 물도 설은 제주 물광 쇠 키와 가명 살아사 밥도 떡곡 헐꺼로구나  
이산 저산 먹던 ㅁ쉬덜도 칠팔월 반풀이 되어 가민  
소곡소곡 느려 산다 연년마다 츠레가 돌아오는 구나  
밤낮 주야로 출을 비여사 헐로구나(좌혜경, 2015: 119-123)

이 민요는 ‘꿀 베는 소리’이다. 제주도는 과거부터 마소를 많이 길렀다. 그래서 먹이로 줄 풀을 충분히 마련해두어야 했다. 다행히 제주도에 중산간 지역에 자연초지가 넓게 분포해 있어 겨울철, 마소에게 먹일 풀(출)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베고 나르는 작업을 했다(김동섭, 2004: 38). 음력 8월 15일에서 9월 15일 사이, 양력 9월 상순경 ‘자굴출’을 시작으로 꿀베기 작업을 한다. 마소 주인들은 봄부터 ‘출왓(꿀밭)’에 풀이 잘 자라도록 관리해 왔다가 온 식구가 함께 풀을 베다. 베는 풀은 햇볕에 잘 말린 다음 적당한 크기로 묶어 둔다. 베어온 마른 풀은 마당 한구석에 ‘눌 늘어’ 두었다가 겨울철 마소들에게 여물로 준다. 마소에게 먹일 수 없거나, 여물을 먹이다 남은 풀은 퇴비로 사용했다. 보통 소 한 마리가 한 겨울동안 먹는 양은 보통 30바리<sup>10)</sup> 정도이다. 그러나 항상 이보다 많이 준비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베는 양은 보통 3바리, 좋은 밭은 4, 5바리 정도이다.

#### 4. 임업노동요

##### 1) 나무 베는 노래

###### <나무 베는 노래>

산 속에서 놀단 낭가 오늘날은 지와 간다 노픈 낭기 앓인 새는 브름 부카 탄식이여  
야팜 낭기 앓인 새는 비가 오카 탄식이여 영주산에 즈랜 나무 오늘날은 지와 간다  
금도치 지와 간다 버국이랑 놀고 가라 천리만리 놀고 가라 함박만씩 놀고 가라  
물박만씩 놀고 가라 산도 물도 넘영 가라

요 낭 저 낭 팔제 좋은 낭 요 산중에 태여 나근  
풍우대작 적관한난 이내 어깨 맞을 보난 좋은 방안으로 만년 부귀 후실이로구나  
댁구당에 태여 나시민 아방궁을 짓일적의 대들포나 메어질컬

---

10) 한 바리는 보통 30단

귀주산에 낮기 따문 이내 어깨 맞을 분다(좌혜경 외, 2015: 106-107)

이 민요는 ‘나무 베는 노래’이다. 제주지역 임업노동요는 작업형태에 따라, ‘나무 베는 노래(낭 끈치는 소리, 낭 끈치는 톱질소리, 낭 끈치는 도치질 소리, 대톱질 소리, 흥기도 치 소리)’, ‘나무 켜는 노래(낭 싸는 소리, 톱질 소리)’, ‘나무 쪼개는 노래(낭 깨는 소리, 낭 깨는 도치질 소리)’, ‘나무 깎는 노래(낭 까끄는 소리, 귀자귀소리)’, ‘나무 내리는 소리(낭 내리는 소리, 낭 꺾어 내리는 소리)’ 등으로 구분한다.

원래 제주도 삼림의 저지대는 구실밭나무, 후박나무 등으로 구성된 낙엽활엽수림, 산록부는 서어나무류, 졸참나무, 물참나무 등으로 구성된 낙엽활엽수림, 산정부는 구상나무의 순림(純林)인 상록침엽수림이 우점(優占)하는 원시림형태였다.

고려시대 이전 한라산 삼림은 소유자가 불명확해 누구나 쉽게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었다. 한라산 삼림은 농경지확보, 방목지조성 등을 위한 인위적인 화입(火入) 때문에 많이 파괴되었다. 특히 고려시대 제주가 원나라의 직할지(直轄地) 때 원나라에 의한 대규모 방목지조성으로 엄청나게 삼림이 파괴되었다. 고려 말 이후, 일부세도가들에 의해 삼림이 독점되어 백성들이 피폐해지자, 1325년 ‘사점금지령(私占禁止令)’이 공포되었다. 이 ‘사적금지령’은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1908년 삼림법(森林法)에 의하여 다시 산림사유화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1908년 삼림법은 조림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주로 한국인에 의한 피해만을 단속대상으로 하였으며 산림소유자는 이 법의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지적(地籍)과 면적의 견취(見取)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전부 국유화시켰다. 1911년, 1908년 제정한 삼림법을 폐지하고 삼림령(森林令)을 공포하였다.

## 2) 대톱질 소리

### <대톱질 소리>

산범 곁은 요 톱으로 스투스 스투스 낭 끊는 소리여  
요 산 중에 놀던 낭도 반대목은 상장목이여 중장목을 비고나 고나  
하장목이 드러나고 동으로 벌은 가지에 어 어 서으로 벌은 가지라  
스르릉 스투스 다 쫄란 보난 일등 가는 대들보 김이로구나  
어떤 사람 팔제나 중앙 부모덕에 고대광실 높은 집 짓엉 살건마는  
이내 팔제 기박허난 낭목쟁이 허명 살단 보난 놈으집이 죽은 일만 허는구나  
요런 팔제 기구한 것도 제 팔제 제 스주인걸 어느 누구를 원망 흐라

내두 남제나라 살암시민 요런 일도 면 흘 때 이시리니  
좋은 집에 좋은 재목에 부모 은덕 받은 사름덜  
어느 누구 원망 말고 조상에다 효도 하고 은덕으로 사는 줄 알아라(좌혜경 외 2015:108-110)

이 민요는 ‘대톱질 소리’이다. 길이 3미터 정도의 대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켜고 오릴 때 부르는 노동요를 ‘대톱질 소리’, ‘낭 싸는 소리’, ‘낭 오리는 소리’ 라고 한다.

1938년 제주도 임야면적은 총 82,700여ha로 도전체 면적의 약 1/4이다. 그 중 요존(要存)국유림(한라산)이 약 27,400ha, 민유림과 미처분 국유림이 55,300ha이다. 민유림은 성림지 7,500ha, 잡수지 10,000ha, 미림목지 37,788ha, 죽림 27ha 등이다. 일제는 수탈 임정(林政)으로 산림의 급격한 황폐화를 우려하여 육묘(育苗)와 조림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일부지역에 삼나무와 편백 조림을 실시하고 유용수 조림도 병행하였다. 1922년 제주읍 아라리 한라산 국유림지대에 해송 10ha, 1925년 봉개, 용강지역에 삼나무 27ha, 편백 15ha를 조림하는 등 운반수단이나 접근성이 편리하고 관리청에 가까운 위치인 제주읍 중심으로 조림하였다. 1928년부터 애월면 광령리에 상수리나무 2ha 식재를 시작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1933년부터 삼림보호직원이 배치되어 민간연료나 가사용 목재벌채를 막았다. 그러나 한라산 주수종인 서나무, 졸참나무 등을 이용, 솥을 만들어 이를 일본으로 반출하는 등 약탈을 자행했다. 1948년 ‘제주 4:3’ 으로 대규모 벌채가 진행되었고 이후 현재와 같이 넓은 초지가 형성되었다.

1951년 법령 제218호 <삼림보호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다. 보호림설정, 삼림계조직, 삼림조합연합회 창립, 삼림보호요원 대폭증원 등 삼림보호조치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연료림으로 아카시아나무, 오리나무 등 속성림이 도내 각지에 조성되었다.

1955년 부정임산물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어 1957년 전국적으로 임산물반입이 강력히 통제되고 제주도에 연탄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1964년 한라산을 비롯 도내 주요 난대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1968년 한라산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석탄과 석유가 연료로 보편화되어 도내 임산연료 채취로 인한 삼림파괴가 사라졌다.

## 5. 수공업노동요(관망요)

### 1) 양태(涼太)노래

#### <양태노래>

졸앙 졸앙 졸앙 졸앙 모자 졸아사 우리 집의 식구덜은 한한 허곡  
애기덜이영 백영 살리젠 허난 눈이 빠지게 허당 보아도 살 길은 막연 호고  
졸앙 졸앙 모자 졸앙 흔저 졸아사 우리 집 식구덜  
술 먹는 서방도 술값도 주곡 허여사 헐로구나  
아기덜도 저레 고만이 앓아시라 흔 코나 걸려사 모자 졸앙 생활 허느네  
졸앙 졸앙 흔저 졸앙 요 모재 아사 우리집 살 길이 솟아난다  
아고 어느 제랑 우리도 부재로 살앙 요눔이 모자 아니 졸아도 살아질 것고  
모자야 흔저 넓으라 넓지도 아니 허곡 붓지도 아니 허곡  
언제 나민 요 모재 졸앙 우리집 생활이 넉넉 헐리(좌혜경 외, 2015: 159)

“제주도의 수공업은 유치한 수준 단계로 제주도의 자원, 즉 자연환경을 이용한 약간의 자원을 가공하는 수공업제품 예를 들면, 죽제품, 조선모자, 탕건, 양태 등이 주를 이루었고 이 외에 주로 자급적 성격을 지닌 약간의 면직물 제품이 존재했다”(고정중, 1930: 68).

이 민요는 ‘양태노래’이다. 한말 제주사회는 농업과 수산업, 임업과 축산업 등을 주산업으로 하고, 제주지역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자원, 예를 들면 말총, 대나무 등을 가공하는 수공업제품들, 즉 죽제품, 조선모자, 탕건, 망건, 양태 등과 같은 관모공예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망건, 탕건, 갓으로 대표되는 조선관모는 말총과 대나무로 제작했다. 제주도는 관모 제작의 원료인 말총과 대나무재료의 특산지이다. 그러나 양태재료인 양죽은 일부만 제주에서 생산되어 부족분은 담양이나 진주, 하동에서 나는 분죽(粉竹)을 들여왔다.

양태는 주로 삼양, 화북, 신촌, 와흘 등지에서 만들어졌다. 이곳은 제주관문인 화북포(조천포, 별도포)와 제주항(산저포, 건입포, 산지항)과 인접했기 때문에 양태재료인 분죽(숨대)을 들여오고 완성된 관모제품을 육지로 운반하는 데 용이했다.

### 2) 망건(網巾)노래

#### <망건노래>

고마기랑 물 먹어 가듯 골막골막 걸려나 지라

메역이랑 입 넘어 가듯 혼 돌 육장 시백인 망건 모리 장에 장 보레 가게  
어느 곱이 나 아니 울리 어느 모디 나 아니 울리  
설룬 부뉘 멩 쪼른 몸에 내사 아니 낭데민 호켈  
요 망건아 나 망건아 혼간에는 옷 믿은 망건  
정의 좁술 나 믿은 망건 함덕 집석 나 믿은 망건 일천 시름 나 믿은 망건(좌혜경 외,  
2015: 160-161)

이 민요는 ‘망건노래’이다. 망건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착용하던 관모(冠帽)이다. 망건은 갓을 쓰기 위해 상투 틀 때 머리털을 위로 걷어 올리려고 이마에 두르는 띠를 말한다. 망건 짜는 일은 제주시 동쪽 지역인 함덕, 조천 등지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5일에 한 번, 한 달 여섯 번(육장), 오일장이 서는 날마다(시백) 그동안 걸은 망건을 내다 팔아 생필품을 구입했다.

본래 명주실로 결던 망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토착화되면서 16세기 후반 무렵부터 말총(馬尾)을 곱게 엮거나 ‘곱소리(코끼리 꼬리털)’나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다. 보통 말총을 직사각형으로 엮어 만들었다. 말총으로 결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창안되어 역으로 중국에 수출되었다.

18세기 이후 양반의 수가 늘고 신분제가 해이해짐에 따라 망건수요가 많아져 민간에서 수공업으로 대량 제작되었다. 18세기 말 금난전권(禁難纏權)이 폐지되자 망건과 관자(貫子)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망건전(網巾廛)이 늘어났다. 그러나 1895년 단발령(斷髮令) 이후 더 이상 망건을 쓸 수 없게 되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정경희, 2006: 238).

### 3) 탕건(宕巾)노래

#### <탕건노래>

이년 이년 이년이 탕건 혼코 두코 못나아나 지라  
요 탕건 못아근 장 보아그네 우리 집 온 식구 밥 먹고 살 탕건  
탕건아 탕건아 나 탕건아 혼 코 두 코씩 다 못아지라  
이년이년 이년이 탕건 요 탕건 못아근 장 보아그네  
나 씨집 갈 때면 이불 흐영 갈 탕건 탕건아 탕건아 다 못아지라(좌혜경 외, 2015: 162)

이 민요는 ‘탕건노래’이다. 제주에서 화북, 삼양 등 제주시 일대와 신흥 등 조천읍에 분포되었던 탕건 결기는 양태, 모자, 망건 결기와 더불어 제주도의 주요 가내수공업이다. 탕

건재료는 말총(馬尾)이다. 쉽게 구겨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가볍고 땀을 잘 흡수할 뿐 아니라 더러움을 타지 않아 위생적이다. 제주도 조랑말의 말총은 가늘고 질기고 부드러워 최고로 꼽혔다.

제주의 탕건은 홀탕건(疎宕)과 곁탕건(密宕), 바둑탕건이 있다. 바둑탕건은 이중사망(二重絲網), 삼중사망(三重絲網), 오중사망(五重絲網) 기법으로 사각무늬를 놓았다.

탕건작업은 2~3명 혹은 6~7명의 또래들이 혼자 사는 동네 여인 집에 모여서 했다. 모여 일하던 곳을 ‘일청’ 혹은 ‘탕근청(탕건청)’이라 불렀다. 탕건 짜는 기술은 주로 모녀간 세습되었다. 여아가 10여세에 이르면 어머니 무릎 앞에 앉아 탕건 짜는 기술을 보고 익히며, 15세쯤 되면 한 사람 몫을 거뜰히 할 수 있다(정경희, 2006: 258).

1929년 제주도내 양태생산호수는 13,700호, 1년 생산수량은 1,350,000개, 생산액 405,000원, 탕건생산호수는 128호, 1년 생산수량 9,300개, 생산액 15,810원, 망건생산호수는 812호, 1년 생산수량 59,000개, 생산액 59,000원이다(조선총독부, 1929: 128).

## 6. 가내공업노동요

### 1) 불미소리

#### <불미소리>

낮에는 낭고지 가고 밤이 되면 요 솟 불 솟양  
독 안 앞으로 내리는 물은 무쇄 녹은 냇물이요  
젓대장이 저 걸음보소 꼬박 꼬박 졸지 말양 요 놀레 들엉 즘을 깨소  
여든 여덟 닛바디가 허우덩씩 대자 오치 불미 놀레  
석자 오치 화시젓대 자 두치 양짓머리 석자 오치 양짓무클 어깨소리 울어 가면  
새벽들이 떠오른다 불로 익은 요 내 몸이  
날이 샌들 지칠 소냐 여야차 두야차 상사랑이로다  
불미나 불영 담배나 먹자 요 불미는 웬 불미요 이 불미랑 불어보소  
서른 여덟 닛바디가 허우덩씩 떴다 떴다 흥애산이 떴다(좌혜경 외, 2015: 166)

이 민요는 농기구 등을 만들 때 부르던 ‘불미노래’이다.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본토와의 교역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이나 농기구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했다. 녹인 쇠물로 쟁기 만드는 불미공예는 약 300년 전 제주에 도입되었다.

제주의 불미공예는 솥, 보습, 벗 등을 주조하는데 필요한 ‘뎡이’와 ‘뚝’을 만들 수 있는

‘점흙’이 나는 덕천리, 낙천리, 덕수리 등지에서 전승되었다. 특히 덕수리에서 쟁기에 쓰는 보습과 무쇠술 등 농기구와 생활용구를 만들어 제주전역에 유통시켰다.

제주의 불미공예는 팽이같이 알맞은 ‘뚝뚝불미’ 형태의 가내수공업으로 전승되었다. 쟁기같이 알맞은 보습이나 벅을 주조하기 위한 풀무형태인 ‘토불미’와 ‘창탁불미’는 나중에 이루어졌다. 풀무질이 잘 되어야 쇳물도 좋고 제품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미공예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제주도 불미공예는 손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쇳을 녹이거나 달구는 ‘손풀무’와 땅바닥에 골을 파 중간에 굴대를 박고 그 위에 널빤지를 걸쳐놓아 한쪽에 세 사람씩 서서 널빤지를 널뛰기하듯 디더가며 바람을 일으키는 ‘골풀무’가 있다. 손풀무는 ‘뚝뚝불미’와 ‘토불미’로 나누어진다. ‘뚝뚝불미’에서는 달군 쇳을 두들겨 칼이나 호미를 만든다. ‘토불미’에서는 ‘독(용광로)’에서 녹인 쇳물을 미리 만들어진 주물 틀에 부어넣어 술, 벅, 쟁기 날 등을 만든다. 골풀무를 ‘창탁불미(디딤불미, 발판불미)’라 한다.

제주에서는 불미를 ‘불마당질’이라고 한다. 불미는 점토와 보리 ‘그스락’(보리수염)을 반죽해 틀을 만들어 3일간 바삭 말린 후 1,000~1,200도 가마에서 5시간 구워내 거푸집을 만든다. 이어 솥을 피우고 바람을 불어넣어 용광로온도를 1,500도까지 올리면 주철(무쇠)이 녹아 쇳물이 나온다. 이 쇳물을 거푸집에 넣으면 무쇠 술이 된다.

<뚝뚝불미노래>

저 동방에 슬퍼 보난 동산새별 둥글둥글  
남방국에 슬퍼 보난 북두칠성 국자로다  
침밭놀이 불미놀레 우리 동창 벗님 약골  
오름 골라 느리는 물에 골데 설채 찍은 물이어  
독안 앞에 느리는 물은 무쇠 녹은 쇳물이어  
요 내 위로 느리는 물은 오장육부 좇은 물이어  
올 디 갈 디 엇어부난 불미질이나 배왓수다(좌혜경 외, 2015: 167)

제주지역 농기구는 작업에 따라 파종구(播種具), 육성구(育成具), 수확구(收穫具), 운반구(運搬具), 탈곡구(脫穀具), 도정구(搗精具), 저장구(貯藏具), 기타로 분류한다. 철재농기구는 파종구나 육성구가 많다. 제주지역 토양은 자갈이 많고 토심(土深)이 얕다. 따라서 ‘보습(보습)’이 넓으면 잘 굽어지지 않으므로 제주지역 농기구는 대체로 뾰족하다(김동섭, 2004: 38). 이 때문에 제주에서는 농토를 갈고 경작하는 데 효율적인 농기구로 뾰족하고 가는 연장이 발달하였다. 소를 이용하는 쟁기 역시 보습과 벅이 작아 자갈이 많은 땅을



일구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김매고 작물을 숙아 주는 육성 농기구로 ‘굴갱이’가 있다. ‘굴갱이’는 자갈밭용과 점토질인 ‘질왓용’이 있다. 자갈밭용은 끝이 가느다란 모양으로 돌 틈 사이 풀 뽑기에 적합하다. 또한 곡식이나 풀을 베고 나무를 치는 데 사용하던 낫이 있다. 이를 ‘호미’라 부른다.

이와 함께 개간 농기구로 코끼리 이빨형 ‘쌍따비’와 주걱형 ‘웨(외)따비’, 뽕족형 ‘벤줄레’가 있다. ‘따비’는 주로 황무지 개간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자갈이 많은 한림과 애월지역은 ‘웨따비’, 화산회토 ‘뜯 땅’인 구좌와 성읍지역은 ‘쌍따비’를 이용했다. ‘벤줄레’는 땅을 일굴 때나 땅 속에 묻혀 있는 돌을 캐 때 사용한다. 장지(葬地)에서 ‘산 담’에 쓸 돌 캐 때도 쓴다. 이 외에 ‘도치(도끼)’, ‘목쟁이’, ‘섭쟁이’, 쟁기의 ‘보섭(보습)’ 등이 있다.

## 7. 토목노동요

### 1) 흑질 하는 소리

<흑질 소리>

뽕뽕 돌명 끈끈 잘 불리라 요 쉼달아

흔저 불려똥 나가사 송애기 젓도 맥이고 잠깐 쉴 철이여

초불 다 불렀거든 흑 똤쓰는 사름덜 흑똤쓰렝 흐라

흑 다 똤쌌걸랑 저 쉼달 다 디물리라 쉼 다 디물렷거든 두 불 불려 걸라

흑 다 불렀거들랑 저 쉼달랑 영주산더레 내 몰아똥 들어오라

흑 다 불렀거든 흑 터는 사름덜 들어상 재게 흑 털렝 흐라

흑 다 털어놓앗거든 자개덜 흑 불르렝 흐라

일락서산에 해는 뉘웃뉘웃 지어가고 요 흑 잘 불림은 남암직흥구나(좌혜경 외, 2015: 175)

이 민요는 ‘흑질 소리(새벽질 노래)’로 초가집 지을 때 벽에 흙을 바르며 부르는 노동요이다. 제주도 초가의 벽체는 나무와 흙으로 축조된 주 벽체와 자연석 현무암으로 축조된 외부벽체(덧 벽)로 구성되어 있다. 주 벽체의 골격은 가시나무, 참나무, 괴목 등을 주로 사용했다. 골격과 골격 사이를 대나무 혹은 잔나무가지로 새끼로 엮어 흙을 발랐다. 칸막이벽체는 대나무를 엮어 그 위에 흙을 바르고 도배했다. 이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옷풍을 막기 위해서였다(김홍식·김석윤·신석하, 1996: 224).

외부벽체는 구조와 관계없이 암회색 다공질 현무암을 ‘막쌓기법’으로 축조한다. 모서리

의 부분벽체는 가능한 모나지 않도록 둥글게 쌓았다. 거센 바람의 영향을 가능한 감소시키기 위해서였다. 외벽은 현무암으로 마감했다.

## 2) 망데기 질 드리는 소리

<망데기 질 드리는 소리>

요매질을 하면서 그릇이 뒸는구나 끈덕끈덕 끈덕지게 옆으로 척척 율매질 하면서  
향도 나고 그릇도 난다 금도 나고 은도 난다 쇠도 나고 물도 난다  
우리 부모 날 날 적에 무슨 날에 날을 난고 용기 장시로 태어나고  
요 내 가슴 서른 한을 그 누구가 풀어주나  
큰 항 작은 항 만들어 줘서 그릇이 다 뒸여가면  
굴들이고 불들이고 옆으로도 찍어보고 높은 동산 좇아 보자  
그릇 장시 용기 장시 흐랑흐랑 돌아가며  
정의골로 돌아가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그릇 샅서  
항을 샅서 그릇 팔고 오는구나(좌혜경 외, 2015: 170-172)

이 민요는 ‘망데기 질 드리는 소리(흙 이기는 노래)’로 흙을 이겨 용기를 제작하며 부르는 노동요이다. ‘망데기(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물을 넣고 흙을 개면서 불렀다. 뭉쳐진 흙을 위로 올렸다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기를 반복해 흙에 찰기를 넣었다. 이를 ‘또린다’라고 한다.

제주지역 토양은 화산회토(火山灰土)가 주를 이룬다. 화산폭발물이 바람에 의해 운반되고 퇴적되어 생성된 토양이다. 입자가 가볍고 토양의 구조발달이 미약하여 점토피막(皮膜)이 없다. 토양점착성(粘着性)이 약하여 용기의 바탕흙으로 적합하지 않다.

제주전통용기는 비화산회토인 황적색(黃赤色) 중점식토(重粘植土) 심토의 하부점토를 바탕흙으로 사용한다. 이 토양은 현무암이 모암(母巖)이기 때문에 산화철이 풍부하다. 특히 장석(長石)은 석회질(石灰質)로 되며 심층토로 갈수록 회갈색으로 변하며 점력(粘力)이 강하다. 이 토양은 제주도 서남부지역과 북서부일부 및 북동부일부에 많이 분포한다. 이로 인해 신평리, 구억리, 무릉리, 고산리 등지에서 제주전통용기의 생산이 성행했다.

용기바탕은 점토(粘土)이다. 제주지역에서 ‘고냉이흙’, ‘흙’, ‘질흙’ 등으로 불렀다. ‘질흙’은 한 밭에 고루 다 있지 않고 있는 곳에만 있다. 그 ‘질흙’을 찾으려면 삽으로 ‘웃직(표토~심토 상부)’을 걷어내고 심토(洗土) 하부의 점토를 채취한 후 계속 물 뿌리며 ‘메질’하여 이긴 후 덩어리로 만들어 마차로 운반했다. 운반한 ‘질흙’은 ‘메판’에 놓고 두 사람이 하루

나 이틀 정도 ‘메질’ 한 후, 한 곳에 보관한다. ‘질흙’은 그릇을 만들 때마다 ‘깨끼’로 흙을 얇게 깎아 잔돌이나 불순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허은숙, 2014: 33).

이러한 제주전통옹기의 생산과정에서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가마에 불을 뿜 때 가마근처에 여성이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주여성들은 생산보다는 판매활동을 주로 했다. 소성(燒成)이 끝나 요출(窯出)한 옹기는 옹기점에 직판(直販)하거나 도봇 장수를 통해 판매한다. 혹은 옹기전에 위탁 판매한다. 옹기생산에 참여한 ‘옹기대장’, ‘불대장’은 소성이 끝날 때마다 노임(勞賃)으로 옹기를 받았다. 그 옹기를 제주여성들이 도내 각지를 찾아다니며 행상(行商)으로 판매했다(오영심, 2002: 54).

옹기는 대부분 곡식이나 현물, 또는 외상으로 거래되었다. 보리, 조, 메밀, 피 등이다. 강정이나 법환 같이 논이 있는 지역에서는 ‘나록(水稻)’을 받았다. 대부분 밭벼(산디), 동촌(김녕 일대)의 메밀, 모슬포의 감자와 미역 등을 받았다. 이외로, 의귀리의 ‘새(띠)’가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의귀리에서는 ‘새(띠)’로 받았다고 한다.

## 8. 운반노동요

### 1) 방앗돌 내리는 소리

#### <방앗돌 내리는 소리>

어기영차 천년만년 어허 언 자던 돌도 오늘날은 어허 언 실 곳이 있구나  
 흔치 두치 내사 가는고 흔치 두치 내 사단 보난  
 허어 언 오늘 하룬 목적지까지 다 들어가는 고  
 친구 벗님네 다 모다 듭시다 칠성같이 어허 어 벌어진 친구 벗님네  
 다ㄴ치 어허 열 다 모다 듭시다 뱃뻥이 돌도 다 들어갔구나  
 천년만년 허 어허 언 자던 돌도 오늘날은 흐 어허 언 쓸모가 있구나  
 옷뻥이 돌도 다 들어가는 고 자 옷뻥이 돌 올려 놓시다  
 산판에서 놀던 돌도 오늘날은 올라간다 자 다 올라 왔구나  
 어기영차 허 허 어허 어 요 뻥이도 다 되어 가는 고  
 요 뻥이를 만들어근 어허 언 자순 열레 물러줍시다(좌혜경 외, 2015: 163-164)

이 민요는 ‘방앗돌 내리는 소리(방앗돌 끌어내리는 노래, 방앗돌 굴리는 소리)’로 산이나 들에서 ‘방앗돌’을 제작하여 마을로 끌어내릴 때 힘을 북돋우기 위해 부르던 노동요이다. 먼저 석수기술을 가진 전문 ‘돌챙이’가 그 근처 현무암바위를 이용하여 ‘방에돌’의 ‘윗

돌'과 '알돌'을 만들면 마을사람 전부가 나서 하루 혹은 이틀에 걸쳐 '낭구루마'(나무마차)로 운반해 왔다. 이때 운반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품삯은 없고 점심(반주포함)만 제공했다.

이렇게 끌고 내려 온 '뭇방애'는 마을마다 '뭇방잇간이', '뭇꺾레왕이' 있어 여기에 설치하고 조나 보리 같은 잡곡의 껍질을 벗기는 기능을 했다. '방앗돌'이 굴러가는 동안 곡식 알갱이가 떨어지고 찢어지며 빵아진다.

'뭇방애'는 '윗돌(맷돌)', '아랫돌(창돌)', '고춧대(선쟁이)', '방틀(틀목)', '빵이(장귀)' 등으로 이루어진다. '뭇방애'는 맷돌보다 수십 배 크고, 사람 대신 말이 돌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높다. 맷돌은 '위짜'와 '아래짜'이 맞닿게 기둥을 의지하여 '위짜'를 세워 돌리는 원리이다. 소나 말이 귀한 곳에서는 사람이 대신 '뭇방애'를 돌렸다. 현무암으로 만든 '윗돌'은 비교적 가벼웠기 때문에 사람이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지방에서는 '윗돌' 자체가 무겁고 커서 소나 말을 떼우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화강암에 비해 가볍고 규모가 작은 현무암으로 '윗돌'을 만들기 때문에 마소가 귀한 곳은 직접 사람이 끌면서 곡식을 찢거나 빵는 일이 가능했다.

<방앗돌 끌어 내리는 소리>

어서 어서 모여덜 돕서 이야호 에 에 야 일심동력 흥여 그네  
수 만석도 모여 들면 가볍습니다 흥적 두적 얼른얼른 넘어 간다  
산 넘어 산이요 물 넘어 물인데 역군님네 모여 들어  
고개 넘고 재 넘어근 소곡 소곡 잘도 나간다  
힘을 내면 고개 너머 막걸리 사발이 기다렸고나  
허야두리 산이로구나 꺾레보난 지남석이여 초불 두불 다 곱아가도 쏠이쳐도 안나는 구나  
앞채 중채 다 들어도 조반 꺾슴 안 나는구나(좌혜경 외, 2015: 165)

제주지역 '뭇방애'는 '위짜'와 '아래짜'으로 구성된다. '위짜'는 '아래짜'에 세워놓은 '중수리' 라는 기둥에 의지해 돌아간다. '뭇방애'를 돌릴 때 올려놓은 곡물이 '중수리'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곡물을 한가운데로 쓸어 모아야 한다. 이 일을 '혹 낸다' 고 한다. '뭇방애'에 말을 매어 앞에서 천천히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윗돌'이 움직인다. '아랫돌'은 땅위에 고정되었다. '윗돌'과 '아랫돌'이 맞물려 돌아가고 곡물을 '아랫돌'에 놓으면 '윗돌'이 돌아가면서 곡식껍질을 벗겨준다.

'뭇방애' 틀은 '뭇방애' '윗돌'과 '아랫돌'을 연결시켜 원심력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 '장틀목'이라 한다. '틀'은 아무나 만들지 않고 반드시 대목수가 만들었다. 볼록하게 다듬어진 아랫돌 가운데 구멍을 내고 원기둥모양으로 나무를 둥글게 다듬어 박아 고정시킨다.

이를 ‘중수리’라고 한다. ‘중수리’ 재료로 쓰는 나무는 질기고 습기에 강한 ‘솔피나무’ 같은 고급수종 나무를 택했다. ‘물방에’ 틀은 구하기 쉬우며 가공하기 쉬운 소나무로 만들었다. ‘물방에집’(‘물방이왕’, ‘물방애왕’, ‘물ㄱ래왕’, ‘물ㄱ래집’)은 ‘물방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물방에’를 비, 바람, 눈에서 보호하려고 지은 초가집이다. ‘물방에집’의 건축과 유지 보수는 동네에서 10~20여 가구가 맡아 공동 부담했다. 지붕은 초가지붕과 같은 방형(方形)이다. 초가를 받치는 네 귀에 굵은 나무기둥을 세우고 벽은 ‘외담’으로 쌓았다. 벽의 포와 벽담 위쪽에 작은 창을 내어 빛이 들어오도록 했다. 안쪽은 흙과 짚을 섞어 만든 반죽으로 벽을 발랐다. 안쪽 벽에 벽장시설을 하여 곡물이나 그릇을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간혹 중간 벽에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조그만 흙 선반을 만들었다.

간혹 개인소유 ‘물방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물방에 계(契)를 조직하여 운영했다. ‘물방에’ 계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채경’, ‘술박’, 기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물건을 순서대로 놓아두면 선착순 20~30세대를 정하여 ‘물방에’ 계가 조직된다. ‘물방에’ 계의 책임자는 ‘계모’이다. 계원이 한번 씩 돌아가며 1~2년씩 맡아 ‘물방에’와 ‘물방에집’의 수리보수를 책임지며 관장했다. ‘물방에’ 사용료는 없다. ‘물방에집’과 ‘물방에’의 수리와 보수에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은 공동 부담했다. ‘물방에집’ 지붕보수는 2년에 한 번, ‘중수리’ 교체와 ‘맷돌매기’는 3년에 한 번, ‘틀목’ 교체는 10년에 한 번 정도한다.

## 9. 제분노동요

### 1) 맷돌 가는 노래

#### <맷돌 가는 노래>

이여 ㄱ래 ㄱ들베 곶앙 즈녁이나 붉은 때 흐라  
 우리 어멍 날 낱을 적인 전싱 곶게 날 낱은 어멍  
 팔재 곶언 구월에 나난 국화꽃도 나 벳을 삼앙 우는 것은 눈물이로 곶나  
 밤이 오랑 밤이 가는 소님 어느 ㄱ실 누겐줄 알리  
 올래 배궏디 청버드남에 이름 생맹이나 씨고 가소

나주 원님은 나주 자랑헛네 호조 판슨 호조 자랑이여  
 지주 원님은 선새 자랑헛네 벨도진은 돈지 자랑 조천진은 국매 자랑헛네  
 벨방진은 소섬 자랑이여 수산진은 청산 자랑

서귀진은 소남 자랑이여 대정원은 가과도 자랑 멧월진은 대 자랑이여

이엿말은 말고나 가게 이엿말 흐민 나 눈물 난다  
스랑 스랑 나 놀던 스랑 간간 놀 쟈 놉이 첩 드난  
어디 간간 나 놀아서니 놉이 첩광 소낭잇 브름 소린 나도 살을메 웃네  
지서명광 오롬엿 돌은 둥글다도 살을메 난다

흐룻 저녁 밀 닷 말 곶안 주역 삼 메 다섯을 흐난  
씨아바님 두 개를 디리곡 씨어머님 두 겔디리곡 흐나 남은 건 임 반착 나 반착  
전처 소박 양첩흐 임아 대천 바당 흐가운디 들영  
ㄱ를 일영 들진 밤 새게 ㄱ레 흐영 날 보내어 두영  
울만 네경 지드리더라 임도 나를 생각흐는지 내 혼자 짝스랑이나(좌혜경 외, 2015: 124-148)

이 민요는 제주여성들의 대표 노동요인 ‘멧돌노래’로 ‘멧돌 가는 노래’, ‘ㄱ레 ㄱ는 소리’라고도 한다. ‘멧돌노래’는 보리나 조 등 곡식을 뿜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해 멧돌을 돌리며 부르는 제분(製粉)노동요다. 힘이 덜 들고 오랜 시간 이루어지므로 노동이나 작업과정에 관한 내용 보다는 개인감정과 정서를 노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립과 근면, 팔자와 한탄, 사랑과 원한, 시집살이, 집안, 경세(警世), 꿈, 신앙, 풍토 등을 가사로 나타낸다.

#### <남방아소리>

이여도허랑 이여하난 눈물소에 배세와 두영 대천바당 가운디 들영 가를잃영 달진 밤샌다  
원진돌밤 흰한 날셔도 이내 가슴 흰한날 웃다 음~ 이여도 허랑 가시오름 강당장집에  
셋클방에 새글럼서라 음~ 우리 집에 삼성제이 열두콜 방에 새맛아 간다  
이여도 하랑 이여이여 이여도 하랑 이엿말은 마라라한다  
마랑가민 남골양 웃나 대로 한질로랑 놀래로 가라 놀래 없건 후회를 말라

방에로구나 방아방아 물방아여 이여도 방에 열두방에 나는 오정 대로 한질 끝내려간다  
대로 한질노래나 불령 거무시거영 잇어부령 놉이나 웃나 광질다리 너무 허염져  
저 늙은이 지랄헤엄서가 노망 헤엄져 저 늙은이(좌혜경 외, 2015: 149-158)

나무로 만든 방아에 곡식을 넣고 찼으며 불렀기 때문에 ‘남방아소리’ 라고 한다. 절구 공이인 ‘방엿귀’를 가지고 두세 사람 혹은 다섯 사람까지 박자를 맞추며 곡식을 찼는다.

가사내용 역시 ‘맷돌노래’와 유사하다. ‘남방애’는 곡물 도정기구로 원형의 나무를 중앙에 흠을 파고 흠에 ‘돌 혹’을 넣는다. 곡물이 밖으로 세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판다. 크기는 직경 80~150cm 높이 50~70cm 정도로 부녀자들이 서서 일할 수 있게 했다. ‘사오기나무(벚나무)’, 느티나무, 가시나무를 이용하며 통나무를 양편으로 쪼개어 만들었다.

#### IV. 결론

이 글은 제주지역 노동요를 9개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표 노동요를 골라 총 20개의 제주지역 노동요가 가지는 제주경제사적 함의를 살펴본 시론(試論) 성격의 연구이다.

농업노동요는 진압농법, 김매기, 거름 장만, 수확 등 농사일에 관한 내용이 많다. 조나 메밀 등의 씨앗을 땅속 깊이 파종한 후 그 위에 흠을 덮고 단단히 다져줌으로써 씨앗 주변의 토양수분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답압(踏壓)이 이루어졌다. 예전 제주지역의 주요 재배작물은 조, 보리, 옥도, 메밀, 피 등과 같은 밭작물이다. 밭은 논에 비해 잡초가 많다. 제초는 대부분 여성 몫이었다.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까지 제주농촌에서는 ‘뚫거름’, ‘쇠거름’, ‘녹비(綠肥)’, ‘인뇨(人尿)’, ‘재(灰)’, ‘어비(魚肥)’ 해조류, ‘우마분(牛馬糞)’ 등을 비료로 이용했다. 다른 농촌처럼, 제주에서도 밭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보리나 조, 콩 등 잡곡을 타작했다. 이때 부르는 노동요를 ‘도리깨’를 사용하는 일이라 ‘도리깨질 소리’, 마당에서 이루어져 ‘마당질 소리’, ‘도리깨’로 보리를 타작했기 때문에 ‘보리타작소리’, 콩이나 팥도 ‘도리깨’로 타작하기 때문에 ‘타작노래’라고 했다.

어업노동요에는 ‘해녀노래’, ‘갈치 낚는 노래’, ‘테우 젓는 노래’ 등이 있다. ‘해녀노래’는 노저으며 물질작업 나가거나, 출가물질 나가면서 혹은, ‘테와’ 짚고 물에 들어 헤엄쳐 치며 부르던 어업노동요이다. ‘출가(出稼)’는 국내외 타 지역 바다에서 ‘물질’을 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마갈물질’이라고 한다. ‘갈치 낚는 노래’는 ‘테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갈치 낚으며 부르던 어업노동요이다. ‘테우 젓는 노래’는 어부들이 자리돔이나 갈치를 낚으러 갈 때, 혹은 해녀들이 가까운 바다에 물질을 나갈 때 노를 저으며 부르던 어업노동요이다.

목축노동요는 ‘나무 내리는 소리’와 ‘풀 베는 소리’가 대표적이다. 제주에서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어 끌어오거나, 소나 말의 등에 짐을 싣고 다니며, 거름을 밭으로 운반하고, 풀이나 곡식을 실어 나를 때 소나 말을 이용했다. 그래서 마소의 먹이로 줄 풀을 충분히 마련해두어야 했다. 이렇게 겨울철 마소 먹일 풀(출)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베고 나르는 작업을 했다.

임업노동요는 작업형태에 따라, ‘나무 베는 노래’, ‘나무 켜는 노래’, ‘나무 쪼개는 노래’,

‘나무 깎는 노래’, ‘나무 내리는 소리’ 등으로 구분한다. 길이 3미터 정도의 대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켜고 오릴 때 부르는 노동요를 ‘대톱질 소리’라고 한다.

수공업노동요(관망요)는 ‘양태노래’, ‘망건노래’, ‘탕건노래’ 등이 대표적이다. 한말 제주 사회는 농업과 수산업, 임업과 축산업 등을 주산업으로 하여, 제주지역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자원, 예를 들면 말총 등을 가공하는 수공업제품들인 죽제품, 조선모자, 탕건, 망건, 양태 등과 같은 관모공예가 행해졌다. 양태는 주로 삼양화북, 신촌, 와홀 등지에서 만들어졌다. 망건 짜는 일은 제주시 함덕, 조천읍 등지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5일에 한 번, 한 달 여섯 번, 오일장이 서는 날마다 그동안 걸은 망건을 내다 팔아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식량을 샀다. 탕건은 화북, 삼양 등 제주시일대와 신흥 등 조천읍지역에서 걸어졌다.

가내공업노동요는 ‘불미소리’가 대표적이다. 제주도는 예전부터 본토와의 교역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이나 농기구 대부분을 자급자족했다. 녹인 쇳물로 쟁기를 만드는 ‘불미공예’는 약 300년 전 제주에 도입되었다. 제주의 ‘불미공예’는 솔, 보습, 벼 등을 주조하는데 필요한 ‘탱이’와 ‘독’을 만들 수 있는 ‘점흙’이 나는 덕천리, 낙천리, 덕수리 등에서 전승되었다. 특히 덕수리에서 보습이나 무쇠 솔 등 농기구와 생활용구를 만들어 제주전역에 유통시켰다.

토목노동요인 ‘흑질 소리’는 초가집 지을 때 벽에 흙을 바르며 부르는 노동요이다. ‘망데기 질 드리는 소리’는 흙을 이겨 옹기를 제작하며 부르는 노동요이다. ‘망데기’를 만들기 위해 물을 넣고 흙을 개면서 불렀다. 뭉친 흙을 위로 올렸다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기를 반복했다.

운반노동요인 ‘방앗돌 내리는 소리’는 산에서 ‘방앗돌’을 제작하여 마을로 내릴 때 힘을 북돋우기 위해 부르던 노동요이다. 먼저 석수기술을 가진 전문 ‘돌쟁이’가 현무암 바위를 이용하여 ‘방에돌’의 ‘윗돌’과 ‘알돌’을 만들면 마을사람이 전부 나서서 ‘낭구루마’로 운반해 왔다.

제주여성들의 대표노동요인 ‘맷돌노래’는 보리나 조 등 곡식을 빻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해 맷돌을 돌리며 부르는 제분노동요다. 노동이나 작업과정에 관한 내용보다는 개인 감정과 정서를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 자립과 근면, 팔자와 한탄, 사랑과 원한, 시집살이, 집안, 경제(經世), 꿈, 신앙과 풍토 등을 가사로 나타내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글은 제주민요 중에서 우선 먼저, 노동요를 중심으로 ‘제주민요가 갖는 제주경제사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제주민요에 함축된 다양한 경제사적 연구요소들을 확대발굴하고 이를 통해 제주경제사연구를 내실화하려 한다.



참고문헌

1. 논저

- 고정중, 1930, 『제주도 편람』.
- 국립무형유산원, 2020, 『제주민요』, 도서출판 역락.
- 김동섭, 2004, 『제주도 전래 농기구』, 민속원.
- 김상규, 2016, 「우리나라 산업별 민요의 경제적 함의」, 『경제교육연구』 제23권 1호, 51-84.
- \_\_\_\_\_, 2017, 「우리나라 지역별 민요를 활용한 경제교육」, 『경제교육연구』 제24권 1호, 65-97.
- \_\_\_\_\_, 2017, 『민요와 경제학의 만남』, 이모션북스.
- 김영돈, 1999, 『제주의 민요』, 민속원.
- \_\_\_\_\_, 2002, 『제주도 민요 연구』자료편, 민속원.
- 김홍식·김석윤·신석하, 1996, 『제주의 민속 IV, 주생활편』, 제주도.
- 남석진, 1987,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성구, 2007,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 송성대·강만익, 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영목장의 범위와 경관」, 『문화역사지리』 제13권 제2호 (통권15호), 문화역사지리학회.
- 양영자, 2007,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민속원.
- \_\_\_\_\_, 2017, 『제주학으로서 제주민요』, 민속원.
- 오영심, 2002, 「제주도 전통사회의 옹기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광호, 1986, 「한국 현대경제사연구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학』 Vol 9. No 3, 한국학 중앙연구원.
- 정경희, 2006, 「제주의 관모공예」, 『제주도지』 제7권,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청, 1937, 『제주도세요람』.
- 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 2 제주도』.
- 조영배, 2009, 『태초에 노래가 있었다』, 민속원.
- 진관훈, 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 좌혜경 외, 2015, 『제주민요사전』, 제주발전연구원.
- 허은숙, 2014, 「제주옹기와 사람들」, 『제주발전포럼』 제49호, 제주발전연구원.

2. 기타자료

제주학연구센터> 유형별정보> 구술(음성)> 민요(<http://www.jst.re.kr/digitalArchive.do?cid=210402>)

Abstract

## A Study on Jeju Economic History through the Jeju Folk Songs

Jin, Gwan-H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economic history of Jeju through the Jeju folk songs. Commonly, each folk song reflects the real living state of economy. There are many kinds of work songs in Jeju Folks songs such as agriculture, fishing, stock-farming, forestry, manufacturing, home industry, public works, carry, and flour milling. Especially, folk songs of fishermen describe the real image of manufacturing and a side job of woman in Jeju at that time.

Folk songs of labor reflect the spirits of production activity of those days. Therefore, Jeju folk songs portray labor for production, economic phenomenon, and the state of economic living at that time in Jeju. Historical facts of Jeju economic history were found in the Jeju folks songs for various industries and labor of people in Jeju at that tim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monstrates how the implication of Jeju folk songs can be applied to the economic history of Jeju. Moreover it could be utilized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connect Jeju economic history and Jeju folk songs in terms of enhancing science in Jeju and expanding scope of Jeju economic history.

In this paper, implication of Jeju economic history about 20 Jeju folk songs in various industries and labor is analyzed - agriculture(4), fishing(4), stock-farming(2), forestry(2), manufacturing(3), home industry(1), public works(2), carry(1), flour milling(1).

**Key Words : Jeju Folk Songs, Economic History of Jeju, Folk Songs of Labor, Folk Songs of Fisherm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

\* The Chief Researcher, Jeju Technopark

제주민요로 보는 제주경제사 연구 시론

교신 : 진관훈 631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광평동로 66,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105동 1003호  
(E-mail: adel@jejutp.or.kr)

논문투고일 : 2021. 01. 29

심사완료일 : 2021. 02. 14

게재확정일 : 2021. 02. 16